



“올 KPGA 다승왕 가리자”

황인춘·김형성 함께 2승 내일 KPGA 선수권 개막 시즌 마지막 샷대결 펼쳐



〈황인춘〉 〈김형성〉

2008 한국프로골프(KPGA) 시즌이 NH농협 제51회 KPGA선수권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올 시즌 주요 타이틀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부문은 다승왕으로 13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포천 베어리크 골프장(파72·7천225야드)에서 열리는 KPGA선수권대회에서 가리지게 된다.
우승상금 2억원이 걸린 한국오픈을 포함해 2승을 거두며 다승왕을 확정할 배상문(22·캘러웨이)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캘리퍼잉스를 준비하느라 시즌을 접은 가운데 다승왕에 가장 근접한 선수

는 황인춘(34·토마토저축은행)과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이다.
시즌 상반기에 일찌감치 2승을 챙겼던 황인춘은 하반기에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퍼트 감각이 살아나면서 생애 첫 다승왕을 노리고 있다.
더욱이 황인춘은 아내가 이달 말 첫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어서 “아기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역시 2승을 거두며 황인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김형성은 상급왕 타이틀은 배상문에게 넘겨줬지만 최우선순위에 주는 발렌타인 대상을 확정했고 내친 김에 다승왕까지 두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하지만 절대 강자가 없는 올해 KPGA 무대에서 다른 선수가 우승한다면 공동 다승왕은 4명까지 늘어날다.
1승을 올린 김대섭(27·삼화저축은행), 김형태(32·테일러메이드), 김우중(27·삼화저축은행)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우승자를 접지기가 쉽지 않다.
조니워커블투라벨오픈 우승자 강옥순(42·안양베네스트)은 같은 기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유망골프투어 바르레이스 오픈 때문에 출전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총상금 5억원에 우승상금 1억원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육탄 방어선을 뚫고 미국프로축구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안쿠안 불린(사진 맨 앞쪽)이 11일(한국시간) 피닉스대학교 경기장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레이 세포와 내달 대결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이 내달 초 종합격투기 K-1 대회에 출전해 레이 세포(37·뉴질랜드)와 대결한다.
K-1 주최사 FEG는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홍만이 12월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파이널(8강 토너먼트) 리저브매치에서 세포와 맞붙는 대진을 발표했다.
이로써 최홍만은 지난 9월27일 서울에서 열린 K-1 16강전에서 바다 하리(24·모로코)에게 기관패한 뒤 석 달여 만에 다시 링에 오르게 됐다. 최홍만은 세포를 이기고 8강 진출자 가운데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대신 올라갈 자격을 얻게 된다.
최홍만이 상대할 세포는 강한 펀치와 뛰어난 맷집을 자랑하는 베테랑 파이터로 2000년 K-1 월드GP에서 준우승, 2년 뒤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세미 파이널(35·네덜란드)에게 KO로 패한 것을 시작으로 K-1에서 내리 6연패를 당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포의 격투기 통산 전적은 62승 2패.
최홍만은 세포와 입식 타격방식으로 3분씩 3라운드 대결을 펼치며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 1라운드를 더 치른다.

“동계 훈련 따뜻한 전남으로”

전남도 스포츠마케팅 전개 관련 책자 1천 200부 배포

전남도가 겨울철 따뜻한 기후와 맛갈스런 음식,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계훈련팀 유치와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등 동계대회 유치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겨울 전지훈련 시기를 맞아 전지훈련 팀과 전국 체육인들은 물론 수도권 지역 골퍼들도 이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박준영 전남지사 명의의 서한문과 도내 경기장 시설, 관광문화, 교통, 음식, 숙박업소 등을 총정리한 ‘전남 스포츠인프라안내서’를 제작해 전국의

중·중·고·대학·실업팀, 체육단체 등에 발송했다.
특히 ‘전남스포츠인프라안내서’는 외부 용역을 맡기지 않고 관광문화체육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낸 관련 정보를 책자로 엮은 것으로 1천2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전남도는 또 이달 말 대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의 관계자, 종목별 지도자를 초청해 남도의 스포츠 인프라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실시하기로 하고, 다양한 종목별 연수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2007년~2008년 동계시즌에 전남지역을 방문한 동계전지 훈련팀은 26종목 1천97팀 2만7천명이며, 전남도는 이로 인한 경제효과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회기자 chae@kwangju.co.kr

“밥삼과 대결 연출은 없다”

이왕표, 정면 대결 밝혀

“격투기에서 장난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힘을 다하겠다.”
국내 프로레슬링 간판 이왕표(53)가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제2경기장에서 열린 김일추 포레버히어로 대회에서 ‘야수’ 밥삼(34·미국)과 종합격투기 대결을 앞두고 정면대결을 예고했다.
이왕표는 11일 “격투기는 내게 꿈이다. 꿈을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면서 “경기는 분명히 일본과 미국 격투기대회인 프라이드FC나 UFC에 상응하는 격투기 틀이 적용되고 각본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왕표와 밥삼이 격투기 틀로 맞붙더라도 이미 짜인 연출에 따라 대결을 진행할 것이라는 일부 팬들의 비판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왕표는 “내가 프로레슬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것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프라이드와 UFC 경기마저도 각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탱크’ 싱가포르 원정 나선다

아시아 투어 중 총상금 최다 미켈슨 등 세계 정상급 출전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사진)를 비롯한 한국 골퍼의 간판선수들이 싱가포르 원정에 나선다.
최경주는 13일부터 나흘동안 싱가포르 센토사골프장(파71·7천319야드)에서 열리는 아시아프로골프투어 바르레이스 싱가포르 오픈에 출전한다.
10일 끝난 유럽프로골프 겸 아시아프로골프 HSBC챔피언스에 이어 2주 연속 아시아 원정이다.
바르레이스 싱가포르오픈은 아시아프로골프투어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총상금 500만달러를 내걸어 미국프로골프(PGA)투어대회 못지않다.
출전 선수도 초호화판이다. 최경주 말고도 세계랭킹 3위 필 미켈슨(미국)과 올해 메이저대회에서만 두차례 우승한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 그리고 에니 엘스(남아공), 아담 스콧(호주), 이안 플러(잉글랜드)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즐비하다. /연합뉴스

이 대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최경주는 HSBC챔피언스 공동35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실망스런 성적을 받아쥐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한국 선수 우승후보는 최경주 뿐 아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가 오랜만에 아시아 원정에 올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10대 골퍼신동 노승열(17·경기고)과 이진병(18·영여 이룸대리)의 대결이다.
지난 10월 아시아투어 미디어차이 나클레식에서 우승을 차지해 ‘위너스 클럽’에 가입한 노승열은 한국 골퍼의 미래를 짊어질 기대주.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배운 이진병은 지난 8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13년 전통의 US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컵을 안았고 현재 세계 아마추어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일본에서 뛰고 있는 작년 한국 상급왕 김경태(22·신함은행), 그리고 지난 6월 타이완 PGA챔피언십을 제패해 12년만에 아시아투어 챔피언에 오른 모중경(37·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12일(수)
▲08/09 칼링컵축구(맨체스터 Utd : 퀸즈 파크 레인저스)(05 : 00·KBS N SPORTS)
▲08/09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신

세계)(16 : 50·SBS스포츠)
▲08/09프로농구(오리온스 : KTF)(18 : 45·SBS스포츠·XSPORTS), (모비스 : 삼성)(19 : 00·MBC ESPN)
▲KB국민은행 2008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정전 1차전(19 : 00·KBS N SPORTS) 13일(목)
▲08/09 칼링컵 축구(토트넘 : 리버풀)(04 : 30·KBS N SPOR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woo Real Estate (대표: 성봉규)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a large photo of a man in a sui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WJB (WELLBING) Real Estate (대표: 김당부동산)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a logo for WJB.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WJB (WELLBING) Real Estate (대표: 김당부동산)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a logo for WJB.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woo Real Estate (대표: 성봉규)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a logo for Daewo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woo Real Estate (대표: 성봉규)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a logo for Daewoo.